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74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고전산문 10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아니리>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명일 **출천대효**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수궁으로 고이 모시**라는 엄명이 지엄하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백옥교자를 등대하여 그 시를 과연 기다릴 제 과연 옥 같은 낭자가 홀연히 물에 들거늘, 고이 받들어 교자 위에 앉힌 후에, 용궁으로 들어가는데

<옛모리>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초초하니, ㉡**천상선관** 선녀들이 심 낭자를 보라 하고 좌우로 벌려 있다.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생은 난을 타고 적송자 구름 타고 갈선웅은 사자 타고, 청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모였는데 서왕모 마고선녀 남악부인 모셨는데 팔선녀 시위하여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이상하다. ㉢**수궁풍악**을 시작할 제 왕자진의 봉피리 니나노 나노 불고, 광처사 죽장고 정저공 정공, 석련자의 거문고는 스리랑 동덩동, 장지방 옥통소 몇띠루 띠루, 헌파 북소리 두리둥둥 등등, 해강의 해금소리 고가그가고가, 능파사 보허사 곁들여 노래할 제,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며 별유천지 세계로 다. 노경골이 위량이며, 인광이 여일이요, 집어린이 작와하니 서기가 반공이라*. 응천상지 삼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라*. 산호주렴 대모병풍 광채 찬란하고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 부상가지 일륜홍이 어리었고 남으로 바라보니 요지풍광 푸른 물에 대붕이 훨훨 날아, 서으로 바라보니 약수 삼천리 일쌍 청조가 날아든다. 북으로 바라보니 중련이 놀라난디 벽도화 붉었다. 음식을 들이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자하주 천일주를 인포로 안주 놓고 호로병에 옥잔 감로수를 놓았다. 한가운데 삼천벽도가 덩그렇게 고여 있다. 옥황상제의 어명이라 사해용왕 하회에 각각의 시너를 보내 조석으로 시중할 제 행어나 부족함이 있을까 조심이 각별터라. (중략)

<중모리> 그때에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각기 하교를 내리신다. 심청이 방년에 들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하라. 분부가 지엄하니 사해용왕 명을 듣고 청이를 환송한다. **꽃봉** 속에 심 소저를 모시고 양대 시너 시위하여 조석공양 찬수 등물을 싣고 인당수에 가 번듯 떴다. 천지조화요 **용왕님의 징험**이라,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하리, ㉣**오색 채운이** 어리어 주야로 동덩동덩 떠 있을 제 **남경 갔던 선인**들은 억십만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북을 두리둥 등등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인당수를 당도하여 제 물을 장만하여 심 소저 혼을 불러 **낭혼제**를 지내는구나. 님이야 님이로다 흥노죽에 시집가던 왕소군의 님도 아니요 당상의 백발부친 감은 눈을 뜨라 하고 생죽음을 하였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심 소저의 님이로구나. 님이라도 왔거드면 많이 흠향하옵소서, 영좌도 울고 적자도 울고 격군 화장*들이 울음을 운다.

<아니리> 눈물짓고 한 곳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인당수에 가 번듯 떴거늘, 선인들이 괴히 여겨 그 꽃을 운전하여 **뱃장** 안에 올려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 진동커늘, 고국에 돌아와 수다한 재물을 다 같이 분배할 제, ㉤**도사공**은 재물을 마다하고 그 꽃을 차지하여 후원의 정한 곳에 든든히 심었더니 이때 **마침 송 천자**께서 **황후 봉어**하신 후 **간택일을 아니**하시니, 화초를 심어 놓고 각 새들을 길들일 제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 부용의 군자용 만당추수 **홍련화**, 암향부동 월황혼 소식 전턴 **한매화**, 진시유랑 거후재는 붉어 있다 **복송꽃화**, 구월구일의 용산음 소축신 **국화꽃**, 삼천 제자를 강론을 하니 **행단춘풍**의 살구꽃, 이화만지 불개문 하니 **장신궁** 중의 **배꽃**이요.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에 **작약**이라, 원정부지이별을 하니 **옥창오견**의 **앵도화**, 축국한을 못 이기어 **제혈**하던 **두견화**, 이화, 노화, 계관화, **홍국**, **백국**, **사계화**, **동원도리** 편시춘 **목동요지** **행화춘**, **월중단계** 무삼경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 **난초**, **파초**, **오미자**, **치자**, **감과**, **유자**, **석류**, **능금**, **포도**, **머루**, **으름**, **대추**, **각색 화초**, **갖은 향과** 좌우로 심었는디, **향풍이** 건듯 불면 **나비 새** **짐생덜이** **찍찍** 울어 노닌다.

<아니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인당수 건진 꽃을 황제전으로 진상하니, 천자 괴히 여기서 **상고**하는 선인들을 기특타 칭찬하시고 무창의 태수로 제수하신 후에 **별궁** 시너로 그 꽃을 운전하여 **황극**전에 심어 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 진동커늘 천자님이 사랑하사 그 꽃 이름을 지으시되, 서천서역 연화꽃이 떨어져 **해상**으로 떠오르는 듯하니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이르시고 날로 보내실 제

<진양조> 일일은 천자님이 화계 배회하실 적에 **명월**은 만정하고 **미풍**은 부동이라. **강선화** **꽃봉**이가 언뜻 **요동**하더니마는, 무슨 소리가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거늘, 천자님이 괴히 여겨, **가차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 꽃 같은 한 소저가 문밖을 나오려다 다시 몸을 움츠리더니 **동정**이 없는지라, 천자님이 괴히 여겨, **가차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 꽃 같은 한 소저가 **앉**았는데, 양개 시너가 시위하였거늘

<아니리> 시너 내려 복지하여 여짜오되, **첩**은 본시 **남해** 용궁 시너온데 **상제**의 명을 받자옵고 **해상**으로 떠왔나이다. 천자 괴히 여기서 **별궁** 시너로 그 꽃을 운전하여 **내궁**에 모신 후에 **묘당**에 물으시니, **문무** 제신이 주달하되, **황후** 승하하심을 상천이 아시옵고, **인연**을 보냈사오니 **황후**를 봉하소서.

<중중모리> 일관 시켜 **택일**하여 **꽃봉** 속의 심청이를 **황후**로 봉하시니, **국가**의 **경사**가 되야 **만조** 제신들은 **산호**만세 부르고 **억조**창생 만민들 ㉦**격양**가 **일삼**을 제, 심 **황후** **입궐**이 된 연후 **당년**부터 **풍년**이 들어 **요순**천지 다시 되고 **선강**직거*가 되었다.

〈아니리〉 황후는 되었으나 만단 생각이 부친뿐이로다. 하루는 심신이 산란하여 옥난간에 빗겨 설 제

〔A〕 〈진양조〉 추월은 만정하고 산호주렴에 비추어 들고 실술은 슬피 울어 나유 안에 흠어질 적 청천의 ㉠외기러기는 월하에 높이 떠서 뚜루뚜루루루 길룩 울음을 울고 나니 심 황후 기가 막혀 오느냐 저 기력아 너 어디로 행하느냐 소중랑 북해상에 편지 전던 기러기냐,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려 할 제 한 자 쓰고 눈물짓고 두 자 쓰고 한숨을 지으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모두 수묵이 되고 언어가 도착*이로구나, 편지 적어 손에 들어 먼 산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데없고 창망한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밝았구나, 심 황후 기가 막혀 편지를 던지고 울음을 운다.

- 작자 미상, 「심청가」

*노경골이 위량이며 ~ 서기가 반공이라: '늙은 고래 뼈가 대들보이며 빛이 해와 같고, 비늘로 기와를 하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있다.'라는 뜻으로, 맥락상 '인간 세계와 전혀 다른 별천지 수궁의 모습'을 표현한 것임.

*응천상지 삼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라: '천상의 해, 달, 별의 빛에 응하고, 인간의 오복을 갖추었다.'라는 뜻임.

*격군 화장: 격군은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 화장은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함.

*선강직거: '신선이 내려온 좋은 일의 증거이자 사례'라는 뜻으로, 심청이 황후가 된 것이 여러모로 좋은 일임을 강조하는 말임.

*도착: 뒤바뀌어 거꾸로 됨.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인들이 남경을 갈 때 지나가는 공간적 배경으로 심청에게 있어 용궁에 들어가는 길목이면서 동시에 현세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
- ② ㉡은 용왕의 징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당수 위에 떠 있는 꽃봉오리와 관련하여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은 인당수에 뜬 꽃이 재물보다 가치 있다고 여긴 뱃사람으로, 심청이 천자와 결연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④ ㉣은 천자가 심청을 황후로 봉한 후 만민들이 일삼아 부른 노래로, 백성들이 천자와 심청의 결연을 국가의 경사로서 즐겁게 인식하고 수용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옥난간에 빗겨 서 있던 심 황후가 헤어진 부친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로,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심 황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친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2. 〈보기〉와 관련지어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면의 극대화'란 이야기의 전개가 플롯의 일관성 또는 응집성을 벗어나 특정한 사건이나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함으로써 사건 진행에 변화를 주는 판소리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일컫는다. 대체로 인물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반복과 대구, 비교와 대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며 음악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장면의 극대화를 잘 활용하면 청중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 장단 중 엇모리장단이나 중중모리장단과 같이 비교적 빠른 장단을 통해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월적 세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목에는 엇모리장단이 주로 사용된다.

- ① ㉠, ㉡는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는 서술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는 해당 공간에 있는 소재와 관련된 상황이나 일화를 언급하여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편집자의 논평으로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면, ㉢는 해당 공간에 들어간 인물들이 느끼는 심리나 정서를 서술하며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는 모두 첫 부분에서 사실을 늘어놓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언급한 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는 모두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하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과 각 인물들이 내는 소리에 주목한 ㉡는 엇모리장단, 관련 사물의 열거에 집중한 ㉢는 중중모리장단을 활용하고 있다.
- ⑤ ㉡는 ㉠, ㉢와 달리 다채로운 의성어를 활용하여 해당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3. [A]에서 '편지'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겪는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만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과 연결되면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연결 고리를 드러내어 사건의 의미를 부각한다.
- ④ 주인공의 처지가 급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 ⑤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가 달라진 까닭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4. <보기>의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소설 속 서사는 인과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개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개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소설 속에서 사건의 연쇄적 발생, 특정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 개성적 인간성의 발현 과정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그럴듯하다 혹은 그렇게 존재할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흔히 고전 소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이 정해 둔 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천명(天命)은 오히려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 세계와 용궁 세계를 넘나들면서 환상 세계를 그려 내는 「심청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연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글에서 개연성을 드러내 주는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볼까요?

- ① '출천대효' 심청을 '수궁으로 고이 모시라'는 옥황상제의 어명은 사해용왕이 심청을 구해 용궁으로 모신 후 각별히 대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 ② 용궁이라는 공간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에 속하므로 용궁에서 심청에게 제공한 음식을 두고 '세상 음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③ 심 소저가 들어간 '꽃봉'이 인당수에 떠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흘러가지 않고 비가 와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용왕님의 징험'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 ④ 인당수에 당도한 '남경 갔던 선인들이' '낭혼제'를 여는 사건은 이후 꽃 한 송이를 건지는 행동으로 이어져 선인들과 심청이 다시 대면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환생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 ⑤ '마침 송 천자께서 황후 봉어하신 후 간택일을 아니하'고 있는 시기에 심 소저가 '꽃봉오리'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녀를 황후로 삼자는 제안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